

■ (언론 동향) 2021.10.22. “한국농어민신문” 보도

○ 농협, 무기질비료 원가 절반에 구매 “공정거래법 위반”

- 주철현 의원 국감서 지적
- 농협 계통구매, 시장 97% 점유, 무기질비료업체 팔 곳 없어
- 최근 5년 적자 2260억 ‘눈덩이’
- 농가 최저가 보장 이유라지만, 농협, 수수료 등 10% 붙여 팔아

국내 무기질비료 생산업체들이 국제 원자재가격이 상승하지 않았더라도 경영난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 놓여 있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경제지주가 사업적 지위를 이용해 생산원가의 절반 수준에서 무기질비료를 공급받아왔기 때문이다.

농협은 매년 가을 지역농협을 통해 이듬해 무기질비료 수요조사를 진행한 후 이를 바탕으로 연말에 국내 7개 비료제조업체와 계통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무기질비료는 농협 계통구매를 제외하면 사실상 갈 곳이 없다. 국내 비료업체에서 생산한 무기질비료는 국내 시장의 97%를 점유한 농협의 계통구매를 통해 유통되는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농협의 무기질비료 구매액이 연간3500억 원대다.

무기질비료 계통구매 계약은 농협이 책정한 비료종류별 ‘구매예정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저가격 입찰자부터 구매 예정량을 채울 때까지 차례로 낙찰자를 지정하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입찰과정부터 업체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철현 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갑) 의원에 따르면 업체가 영업 비밀인 제조원가를 스스로 공개하고,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해 원가 이하로 입찰에 응하는 불합리한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즉, 농협은 무기질비료 경쟁입찰에 앞서 비료업체로부터 원자재대금 등 영업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받은 다음 전문회계법인 용역을 통해 원가를 자체 산정, 이를 기초로 구매예정가를 결정하고 있다. 농협은 이렇게 해서 자체 산정한 생산원가보다 10~25% 낮은 가격에 무기질비료 구매가 가능했다. 비료업체 기준으로는 자체 산정원가의 50~60%에 불과한 금액이다.

이러한 계통구매 계약 방식으로 인해 비료업체들은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누적 적자가 22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급등한 국제원자재가격과 상관없이 애초에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원자재가격까지 상승하자 업체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몰리게 됐다.

농협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철현 의원은 “업체 영업 기밀 자료를 받아 구매예정가격을

농정 동향/주요 이슈

2021. 10. 25.(월)

제시하면 업체에는 무조건 적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생산원가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가격으로 무기질비료를 납품받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협 측은 “농가에 최저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농민을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농협은 수수료와 장려금, 지역농협 영업이익 등 최대 10% 이상 이익을 붙여 농가에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나 해명에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게다가 비료업체가 계속되는 적자에 무기질비료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제때 비료를 사용할 수 없는 농가까지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농협 측은 다만, “비료업체와 협의해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답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우정수 기자 >